

# 영광군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간담회 개최

### 최종 선발된 모범 수렵인 30명 대상 운영 방침 안내·교육 농작물 피해주는 멧돼지·고라니 포획 실시 주민들 '큰 호응'

영광군은 지난 25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가축 및 농작물 피해의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최종 선발된 모범 수렵인 3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영광군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이하 '구제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4년 구제단 운영방침 및 포획허가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와 관련하여 안전한 구제활동을 위한 주의사항 및 수렵관리 시스템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구제단의 주요임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구제활동, 주택가 출현 유해 야생동물이 주민을 위협할 시 긴급출동 및 포

획활동,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멧돼지 포획활동,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저수지·하천 등 예찰, 불법엽구 수거활동 등이 있다. 지난 2023년 농작물 피해를 주는 멧돼지 183마리, 고라니 850마리를 포획한 것과 고립된 지역 특성 상 번식에 따른 피해가 큰 도서 지역에서도 멧돼지 포획활동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은 구제단 운영의 주요성과이다. 조은주 환경과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영광군과 구제단



이 적극적으로 포획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영광군은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유해야생동물 피해 및 구제 신

# 함평군,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정책 발굴·소통

함평군이 25일 청년 권익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함평군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함평군 청년 28명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모임으로 운영된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제3기 청년정책협의체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김순순 위원, 부위원장에 김담 위원과 함께 일자리·교육·복지·문화분과 대표 4명을 아울러 선출하였다. 청년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발굴된 분과별 의제는 수시 간담회 및 지속적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등, 지역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과 실행에 노력할 계획이다. 김종환 인구경제과장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영암군, 도로 민원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새해부터 영암군에서는 다양한 도로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영암군이 올해 초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 관 등 그 후속 작업을 마치고, 26일부터 일원화한 도로 업무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이 조치로 영암군은 도로 관련 주민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도로 점용 인허가 등 절차도 간소화해 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었다. 지난해까지 영암군의 도로 업무는 두 부서로 나뉘어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마을안길·소규모 도로·골목길 등 비법정도로는 건설교통과와 읍·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였다. 이런 분류가 낡은 주민 입장에서는 도로 관련 민원이 있을 때 담당자를 찾거나 전화통화하는 일로 적잖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영암군은 올해 조직개편으로 건설교통과 토목팀을 도로시설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 관리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도록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긴급보수 등 도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겠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산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 "사계절 별미 '프리미엄 1004굴' 신안1004몰에서 만나요"

신안군 온라인 쇼핑몰 '신안 1004몰 (www.shinan1004mall.kr)'에서 갯벌과 햇빛, 바람을 맞고 자란 건강한 '1004굴'을 1월 2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1004굴'은 전국 유일의 자연 노출식 양식으로 맛과 풍미, 식감이 뛰어나고 생식소가 발달하지 않아 사계절 먹을 수 있으며, 육질과 껍질이 단단하여 저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강점이 있다. 신안군은 군민의 소득 증대와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1004굴 연구 사업을 통해 종자 생산에서 출하까지 양식산업화 체계를 구축하고, 여가가 참여한 시범양식장 운영을 통해 자동세척과 선별, 포장, 해감 시설을 갖춘 1004굴 전용 처리 저장 시설 등을 지원했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에서 생산된 '1004굴'은 국내 유명 호텔에 판매되고 있으며, 홍콩 외 4개국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첫 해의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의 입맛을 저격하기 위해 '2024년 신안1004몰 설 기획전'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충분한 수량을 준비하여 소비자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출하 전 노로바이러스와 중금속 검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 무안군,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5년간 2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무안군은 지난 25일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마을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주민과 공동체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및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과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주민공동체에 씨앗, 새싹, 열매 단계에 따라 5년간 2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5년간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가꾸는 특화사업(인식전환·환경정화·경관개선)으로 추진하는 마을에 3년간 5백만 원씩 지원한다. 백창성 지역개발과장은 "마을의 진정한 주인은 주민들이며,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마을돌봄 문화형성, 깨끗하고 살고 싶은 마을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목포시, 지난해 김 수출 1021억원 역대 최고 찍었다

목포시는 2023년 김 수출액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7850만 달러(약 1021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전남 지자체 1위, 전국 지자체 2위의 성적으로 2022년보다 각각 한 단계씩 상승했으며, 마른김 수출액은 2년 연속 지자체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김은 세계적 먹거리로 자리잡으며, 지난해 120여 개국에 사상 최대치인 수출액 7억900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김 수출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김산업 특화에 매진하고 있는 목포시에서도 김은 수산식품 수출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식품으로 자리잡았다. 목포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특화단지 육성'을 내걸고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마른김 거래소 도입 등 목표의 미래먹거리를 넘어 세계적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먼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김산업 특화에 탄력을 받았다. 센터는 지난해 열린 제12회 김의 날 행사에서 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주한 덴마크 외교부 소속인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